



3,100명의 '아름다운 손'..

한국일보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하는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100인 기부 릴레이' 사업을 처음 소개한 25일 오후 9시. 행사 준비로 아직 불이 밝은 한국여성재단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파출소 오하례 경사. 그는 쑥스러운 듯 "가정의 달을 맞아 뭔가 의미 있으면서도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사를 보고 '이거다' 싶어 전화했다"고 말을 꺼냈다. 마지막 참여자 선정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리던 여성재단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전화였고, 오 경사는 '100인 이꿈이'의 마지막 주자로 참가하게 됐다.

5월1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기부 릴레이'는 액수와 상관 없이 기부라는 끈 하나로 3,100명이 연결되는 초유의 기부 프로젝트다.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든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부 릴레이에 참가자와 일반인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기부 릴레이'는 돕는 기쁨을 자신이 아끼는 이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축제'다. '기부릴레이'의 출발선에서 시작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우리 사회 지도자 100인으로 구성된 '이꿈이'들.

'이꿈이'라는 호칭은 한달간 자신이 시작한 줄의 배턴이 제대로 이어

지도록 이끌어야 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꿈이' 그룹에는 이명박 서울시장 같은 정치인을 비롯, 김정태 국민은행장, 김수환 추기경, 이회호 전 대통령부인, 소설가 박완서,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김성주 성주인터내셔널 사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나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100인이 포함돼 있다.

첫주자가 다음주자 추천

100줄서 한달간 31명씩 연결

"부담 안주려 액수 안정해"

'기부 릴레이'는 첫날 자신의 기부를 시작으로 다음날 기부를 이어갈 두 번째 주자를 추천하고, 두 번째 주자는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줄이 끊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어진다면 31일간 한 줄에 31명씩, 총 3,100명이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게 된다. '이꿈이'의 역할은 자신이 시작한 줄이 멈추지 않고 배턴을 이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에 릴레이가 멈추지 않도록 격려하고 다독거리는 것이다.

첫 주자 중 한명인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는 "기부를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요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대부분의 참가자는 생애 최초로 기부를 요청 받고 이를 다시 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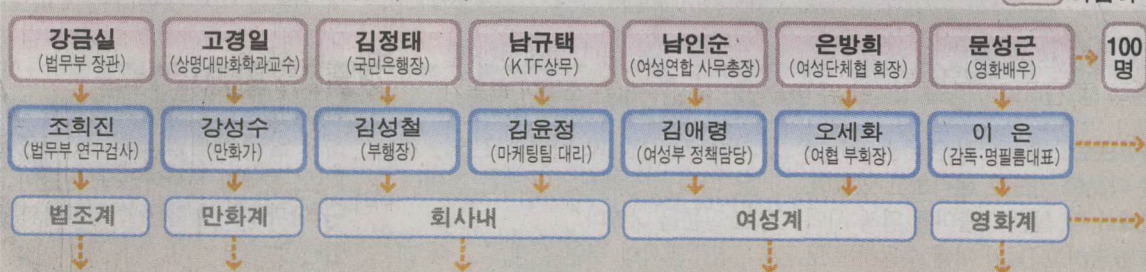
여성재단 김현영 대리는 "기금 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기부의 기쁨을 나눌만한 이가 있는지 돌아보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권유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부 릴레이 참가자들은 5월 2일 오전 10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발대식에서는 '기부 릴레이'와는 별도로 소설가 박완서씨, 피아니스트 서해경씨, 극단 '인형'이 각각 인세와 공연수익의 1%를 기부하기로 하는 약정식과 영화배우 김보성씨의 홍보대사 위촉이 있을 예정이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 기부릴레이 진행예상도(총3,100명)



41세 아버지 줄... 여고동창 줄... 아이디어 만발

한 달 동안 자신의 줄을 이끄는 '이꿈이'가 하는 일에 따라 그 줄의 성격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100명의 '이꿈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줄을 구상하느라 시작 전부터 밤낮 없이 바쁘다. 줄을 튼튼하게 다지는 것은 물론 끊어진 줄을 다시 이어가는 것도 첫 주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법조계 인사를, 상명대 만화학과 고경일 교수는 만화가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

혜경 대표는 문화예술인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CEO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은방희 회장은 여성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줄을 세우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 밖에 박태범 '나무기획' 사장을 중심으로 한 '41세 아버지 줄', '맹순이 꽃게찜 사장'으로부터 시작되는 '매출나눔 줄', 페리앨리스 인터내셔널 김성애 이사를 위시한 '여고동창줄'도 기대되는 줄이다.



100인 기부 릴레이 '이름이' 명단
(가나다순)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강남식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강부길 SBS 교양제작 PD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강지원 변호사
고경일 상명대 만화영상학과 교수
구자홍 의정부 예술의전당 관장
김경오 대한민국의학공회 총재
김규영 아태보이스카웃 사무총장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김미화 개그맨
김병후 후 신결정신과 원장
김보성 영화배우
김성애 페리엘리스 이사
김성주 성주인태내셔널 사장
김수환 추기경
김옥라 각당복지재단 이사장
김정숙 국회의원
김정임 C&J 대표이사
김정태 국민은행 행장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
김혜정 걸스카웃 국제교육부원장
김효선 여성신문사 부사장
남규택 KTF 상무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노성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
론 가우드 PBMS 사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문성근 배우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박금자 박금자 산부인과 원장
박승진 법무법인 다인 변호사
박양실 박양실 산부인과 원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완서 소설가
박윤정 에스모드서울 이사장
박은경 환경과문화 연구소장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 수석
박태범 나무기획 사장
박효신 한국광고주협회 상무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혜경 한림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손 숙 연극인
손인춘 (주) 인성내추럴 사장
송광자 효성그룹 회장 부인
송도균 SBS 사장
송병락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신석교 제일은행 차장
신수연 코리아스테파 사장
신숙희 우먼타임스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심영섭 우림건설 사장
안종길 인하우스 대표
오재식 (전) 월드비전 회장
오학래 경찰 (한국일보 독자)
오한숙의 방송인, 여성학자
왕상은 협성대 대표이사
유시민 국회의원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윤석민 SBSi 대표이사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은병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경배 기업메세나협 사무총장
이경순 언론평론가
이계경 (전) 여성신문사 사장
이규동 서울예술대 기획처장
이길여 경원대 총장
이길재 농수산TV 회장
이동호 현대사회복지대 총장
이명박 서울시장
이미경 국회의원
이상은 가수, 홍보대사
이숙자 성신여대 총장
이승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국회의원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우재 국회의원
이재은 여성재단 전 사무처장
이태수 현대사회복지대 교수
이혜경 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홍주 SK 와이번스 감독 상무
이희호 전 영부인
임종석 국회의원
임혜선 KBS 외주제작 PD
정명수 한국일보 이사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구현 연세대 경영대학원장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미정 이룸라이프 부사장
정의숙 이화학당 명예이사장
제프리 존스 (전) AMCHAM 회장
조은희 우먼타임스 편집위원장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은희 여성부 장관
최영희 국회의원
최형욱 맹순이 꽃계점 사장
한명섭 서울YMCA 간사
한명숙 환경부 장관
한 영 여성재단 광주지역 회장
황기현 실버블렛 전략플래닝 실장

· 나눔의 축제가 이어진다



여성기금 조성을 위한 '100인 기부 릴레이'는 남을 돕는 데 익숙치 않은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나눔 축제'다.
/한국여성재단 제공

“기부는 특별한 소수만의 특권 아니죠”

행사 주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기부의 기회는 ‘특별한 소수’나 기업만의 특권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박영숙 이사장(사진)은 100인 기부 릴레이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기부의 기쁨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입을 열었다. 한국여성기금은 1999년 12월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73억여원의 ‘여성기금’을 조성한 한국 최초의 공익운동 지원 민간단체다.

“많은 기업이 사회 공익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윤을 환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성한 기금을 회사 이름을 걸고 직접 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 그 중 사회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여성단체는 자금을 구하지 못해 고전하는 경우가 많았죠.”

매년 5월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해 백화점 바자나 콘서트 등 각종 캠페인을 개최해 오던 여성재단은 올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금 모집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고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계획은 일단 접을 수밖에 없었다.

대신 다수가 적은 돈을 모아 ‘여성기금’에 보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칭찬 릴레이’에서 아이디어 얻은 ‘기부 릴레이’가 탄생했다. “때로는 기금의 필요성을 홍보해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눔’이라는 끈으로 묶인 인간 사슬을 엮어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성기금은 모은 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여성을 위한 곳에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많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여성 중에는 사회 차별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 기금 조성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이들이 늘고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면 합니다.” /김신영기자